기생충 감상문

202114110 조예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때 학생이었던 나는 입시가 끝나고 넷플릭스에서 가족들과 영화를 시청했다. 개봉 당시 포스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꽤 충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어딘지 모르게 침침한 색깔의 잔디밭과,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검은 선으로 가려져 있었다. 근데 포스터를 다시 보니 영화에서 ‘기생충’ 으로 그려지는 송강호의 가족들은 검은 선으로 칠해져 있는 반면, 이선균의 가족들은 흰 선으로 그어져 있다. 선과 악을 표현하려는 것인가? 아님 숙주와 기생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가? 색상의 구분은 나에게 그런 느낌을 준다. 또한 왼쪽 하단에 누군지 모를 다리가 있다. 극 중 사망한 박소담의 다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따라서 처음엔 영화 ‘연가시’ 와 같은 약간의 호러물인 줄 알고 관람을 꺼렸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느낌의 공포 영화는 아니라는 후기를 보고 관람하게 되었다. 사실 기생충은 워낙에 유명한 영화이다. 개봉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고, 오스카상 4관왕을 했을 정도이니 이 영화의 작품성은 말 다했다고 본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땐 “이게 뭐지?” 싶었다. 마지막에 송강호가 이선균을 찌를 때 “이걸 꼭 찔렀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을 했다. 송강호에게서 나는 냄새가 역하다는 표정만으로 그를 찌르기에는 너무 충동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파티 당일날에도 이선균은 송강호에게 차갑게 대했다. 또한 딸인 박소담이 칼에 찔린 후에 이선균이 살고자 차키를 달라 했을 때 극도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을 것만 같다.

또한 영화의 중간중간 수석이 등장하는데, 이는 명문대생 친구에게서 재물운과 합격운을 가져다 준다고 얻은 것이다. 이는 소중하게 간직되다가, 파티 현장에서 최우식이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쓰인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지하실의 박명훈에게 오히려 수석으로 머리를 가격당한다. 박명훈은 또한 이선균에게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아이러니한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그와 친분을 쌓았어도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극 중 박소담의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https://namu.wiki/w/%EC%9D%BC%EB%A6%AC%EB%85%B8%EC%9D%B4) [시카고](https://namu.wiki/w/%EC%8B%9C%EC%B9%B4%EA%B3%A0)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이라는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어구가 유행이 되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예기치 않게 웃음포인트를 유발하고 나에게는 그 내용을 한번 더 상기시켜 주어 신선했다.

그리고 송강호의 가족들이 최우식을 필두로 모두가 이선균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 과정이 신기했다.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한 것 같았다. 사실 나라도 현실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무조건 믿었을 것 같다. 그리고 박소담이 미술치료를 할 때 검증되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굉장히 능력있는 인물인 건 확실한 것 같다. 산만하던 다송이를 점잖게 만들어주고, 문서를 위조하는 능력이나 그 짧은 새 언변 능력 등 대단한 인물인 것 같다.

또한 작 중 마지막 장면에서 최우식이 송강호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나는 최우식이 결국 목표를 이뤄 송강호와 다시 고가의 집에서 재회할 것이라 생각한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목표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다시만날 그 날까지 건강하세요’ 라는 그의 완강한 결심을 보는 것 같아 복잡한 심경이 몰려왔다.

사실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 했다.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열아홉의 나와 스물의 내가 이해한 작품은 조금 다르다. 또한 두 번째로 영화를 봤을 때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명작은 두고두고 몇 번씩 봐야할 것만 같다.

그리고 이정은이 ‘나도 돈이 많았으면 착했을 거다. 돈이 다리미다. 구김살을 펴 준다.’ 라고 말한 장면이 있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선균과 조여정은 돈이 있어서 착한걸까? 아니, 착한 걸까?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부부의 대화에서는 결코 너그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돈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른 부분에서 급을 나눴겠지. 어떻게든 급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결국 인간은 속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